

아시아 공동체와 전통

세계화 시대 한국음악의 탈식민성*

김 성 혜

1. 들어가면서
2. 세계화 이전의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
 - (1) 오리엔탈리즘: 타자로서의 아시아의 등장
 - (2) 과도기: 인식의 대상에서 인식의 주체로의 전환
 - (3) 탈식민적 민족주의
3. 세계화와 아시아 공동체
 - (1) 세계화의 양면성
 - (2) 근대와 탈근대의 연속성
 - (3) 세계화와 근대화
4. 나아가면서

* 이 글은 2010년 10월 16일 한국음악학학회 가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를 통해 살펴보는 21세기 한국음악담론”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개 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는 아시아 11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창단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최근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이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는 글로벌 중심의 세계화의 확산과 로컬의 지역적 정체성 사이의 역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전통에 대한 탐구가 아시아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과 중심 사이의 헤게모니 구조를 무력화시키는 세계화 시대 탈식민으로의 도약인지 혹은 여전히 중심의 확산에 대한 수동적 대응으로서의 식민에 대한 모방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와 세계화가 만들어 내는 복잡한 역학 관계는 21세기 세계화의 속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이자 동시에 세계화의 한계와 위험을 극복하는 탈식민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전통, 오리엔탈리즘, 아시아주의, 탈식민

성,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www.kci.go.kr

1. 들어가면서

“아시아는 하나다.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아시아는 두 개의 위대한 문명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보편성을 중시하는 중국의 유교 문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인도의 힌두 문명이다.”¹⁾

“아시아의 전통음악은 각 민족에 따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 아시아의 민족음악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성만 유지하다가 서구의 대중음악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통음악은 각국의 민족을 대표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역사성이나 예술성 그리고 대중성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에 뒤지지 않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각국에서는 자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아시아 음악 창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이 EU처럼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아세안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 21세기를 아세아 문화의 세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²⁾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음악이라는 만국의 공통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아시아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아시아 고유의 문화가치를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아시아 전통 오케

1) Okakura Kakuzô, *The Ideals of the East* (1904). Leo Ching, “Globalizaing the Regional, Regionalizing the Global: Mass Culture and Asianism in the Age of Late Capitalism,” *Globalization*, edited by Arjun Appadurai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1), 279에서 재인용(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2) 박범훈, “인사말,” 『한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창단공연』 (2009년 5월 31일/6월 4일), 3.

스트라'가 창단되었다.3) 아시아 11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공연하는 모습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전되어 온 아시아 각 나라의 '과거'와 아시아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 간의 대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세계화 시대 아시아 공동체가 구상하는 '전통, 아시아, 음악, 문화'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결성 당시 학계 안팎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4)

현재는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함께하지만, 창단 초기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가하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에 동참하였던 아시아 11개국은 아시아라는 공간적인 근접성 외에 '식민, 근대화, 서구화, 탈식민'이라는 공통된 근대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5) 그런

3) 2009년 창단 당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명칭은 '한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였다. 이후 2011년 3월 일본과 중국이 합류하면서 그 명칭을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로 변경한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한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로 표기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할 것이다. 한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5월 13일 보도 자료 참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00513_020700353, 2012년 4월 21일 접속).

4)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결성 초기 학계의 관심을 보여 주는 예로, 2010년 8월 24일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제2회 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연구회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Music, Musics of East Asia)에서 김희선이 "범-아시아 관현악단: 아시아 상상하기의 시학과 정치성"이라는 제목하에 한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관련 정보는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어 "제2회 국제 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연구회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2012년 5월 28일 접속).

5) '탈식민'은 탈근대(postmodern)가 '근대의 단절'뿐 아니라 '근대 이후'를 포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에 대한 극복'(decolonization)과 동시에 '식민 경험 이후'(post-colonial)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식민 '이후'의 경험에서 식민 '극복'과 식민 '지속'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복합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근대사 초기라는 맥락을 벗어나서 아시아 11개국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종교, 언어, 문화적인 면에서 서로 닮은 점 보다는 다른 점이 많은 나라들이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 참가하는 아시아 나라들은 식민 이전, 식민, 탈식민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발견되는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⁶⁾ 따라서 20세기 후반부 아시아 각국의 탈식민의 역사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대해 각기 다른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아시아 공동체의 공동의 전통 창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서구 자본과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에 대한 대항, 즉 세계화에 대한 지역주의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세계화 시대 아시아와 한국의 탈식민적 특수성을 논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특히 세계화, 즉 초국적(transnational) 문화 교류와 소통을 비서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기에 적합한 문화 현상이다. 왜냐하면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세계화의 변화를 경험하

점에서 이 글에서는 식민 ‘이후’와 ‘극복’을 모두 ‘탈식민’으로 표기할 것이다. ‘탈식민’은 피식민 국가뿐 아니라 지배자로서의 서구 또한 초국적 헤게모니에 대한 욕망이나 향수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경험이고 과제이다.

- 6) 우리의 경우,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화를 경험하였고, 이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압축적인 근대화와 서구화를 이루어 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서구식의 근대화와는 다른 형태와 다른 행보로 근대화를 진행해 나갔다. 또 토착 문화와 관습, 종교들을 유지하면서 서구식 정치 제도의 일부만을 수용한 나라들도 있다. 그리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서구 기독교적 가치관, 미국 문화를 과거 봉건 문화의 잔재와 악습으로 거부하면서 20세기를 보낸 나라들도 있다. 또한 몇몇 나라들은 1980년대 후반 해외여행 자유화 그리고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와 교류가 거의 없었다. 미얀마의 냉전 시대 국가명이었던 ‘버마’, 캄보디아의 극단주의 좌파 정당 ‘크메르 루즈’, ‘월맹 베트남’과 ‘월남 베트남’은 냉전 시대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념으로 분리된 채 아시아 간의 문화 교류에 소원했음을 잘 보여준다.

고 있는 현재의 아시아가 서구식 세계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입장과 방법 사이의 역동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 담겨 있는 아시아, 전통, 세계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근대와 탈근대, 식민과 탈식민, 서구와 탈서구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와 담론적 논증(discursive terrain)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화 이전까지의 탈식민 상황과 특징을 세계화 시대 아시아주의와 연계시켜서 근대화와 세계화 사이의 유사성을 밝히고 세계화 시대 탈식민의 한계와 장애를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의는 세계화에 대한 탈식민적, 탈근대적 대응의 문제점과 양가성(ambivalence)과 연관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오리엔탈리스트적인 재현으로서의 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서구 중심의 근대주의 담론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특수성을 간단하게 고찰할 것이다. 서구와의 불평등한 만남을 시작으로 ('타자'로서의) 아시아의 동질성(homogeneity)이 성립된 과정에 대한 고찰은 오리엔탈리즘과 근대화에 대한 탈식민적 비판과 성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어서 서구 중심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과 수용으로서의 세계화의 양면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아시아 공동체에 내재된 탈식민성을 다룰 것이다. 아시아, 전통에 함축된 민족주의, 세계화, 탈식민주의 담론 사이의 논쟁을 재구성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리고 현재 우리의 탈식민의 방향과 성격을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세계화 이전의 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성장

(1) 오리엔탈리즘: 타자로서의 아시아의 등장

아시아와 유럽,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서양은 ‘오리엔트’의 일부로서 ‘아시아’를 상상하고 창조해 내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동양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대 문명으로서, 자각하는 이성을 토대로 하는 그들(유럽)과는 ‘다른’ 종교, 언어, 풍습을 가진 ‘거리가 먼 이국적’인 ‘그곳’으로서 상상해 왔다. 19세기 중반 이후 낯선 두 사회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동양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서양을 맞았다. 반면 동양과의 만남을 준비했던 서양은 아시아를 근대화 된 서양과 전혀 다른 ‘전 근대적’, ‘봉건적’, ‘전통적’인 ‘타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아시아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는 서양의 중심에서부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짐으로써 타자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전반부 서구의 연출에 따라 아시아 공동체는 타자의 집합체로서 세계사에 등장한다.

서구의 타자로서의 아시아 공동체의 세계사 등장을 문제 삼았던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의 근대사가 서양의 언어와 관점을 빌려 근대적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한 모방의 역사로 폄하되거나 동양이 서양의 근대성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모방하는 하위 주체로 왜곡되어 왔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⁷⁾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서양과 동양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양에 대한 서구의 가치관이 각색되고 구체화되어 온 과정과 방법을 비판한다. 오리엔탈리즘과 근대주의의 결합은 결국 고유한 가치와 독자적인 문화 전통 속에서 발전해 온 아시아 각 국가(민족)의 문화적 고유성과 주체성을 말살하고 아시아

7)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Representing the Colonized: Anthropology’s Interlocutors,” *Critical Inquiry* 15 (1989), 205-25.

를 물화(objectification)해버린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세기에 탄생한 아시아는 아시아 스스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한 자생적인 공동체는 아니었다. 오리엔탈리즘의 상상에서 역사적 실존이 된 아시아 공동체는 서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연출에 의해 탄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서구란, ‘본질주의적, 오리엔탈리스트적, 제국주의적’ 서구를 의미한다.

(2) 과도기: 인식의 대상에서 인식의 주체로의 전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야기된 역사적 불연속성은 인식의 주체로서의 서구와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비서구 사이의 이분법적인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다양한 논의로 이어진다. 그리고 팽창적인 식민주의 시대의 유산인 정치적 동기와 문화 표현 방식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면서 서구적 자아와 비서구적 타자라는 식민주의적 연관 관계는 급진적인 재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더욱이 아시아는 식민 이전과는 다른 민족적, 지역적 경계를 갖게 되면서 과거 하나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나뉘지거나 혹은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 체제로 통합되면서 식민 극복과 함께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한다. 이 시기 동안 한편으로 아시아 각국은 제각기 다른 식민 이후의 시간 속에서 서구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스스로 조정하고 자국의 역사 안에서 근대사를 재맥락화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와의 헤게모니 관계를 유지하거나 더욱 더 공고히 하면서 식민 상황을 지속하기도 한다. 식민 극복과 식민 연장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아시아 각 나라는 서구가 부여한 타자적 범주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한다. 1970-80년대 우리 사회가 민족주의 전략으로 우리의 근대사, 음악관, 음악 제도 및 교육을 재조명하고 해체하는 데 몰두했듯이 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

회복에 집중하게 된다.

(3) 탈식민적 민족주의

1970년대 후반부터 냉전이 종식될 무렵까지 우리는 서구 중심의 근대를 극복하는 탈식민(decolonizing)의 전략으로써 민족주의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⁸⁾ 식민과 불가분의 관계인 서구에 대한 종속성을 단절하고자 서구와의 만남 이전의 문화전통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이 시기 민족 정체성 확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음악에 대한 서구적 관점과 제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1980년대 한국음악의 정체성 논의는 한국의 근대사를 서구가 아닌 우리 고유의 관점과 언어, 그리고 음악적 감수성으로 표현하고 느끼려는 탈식민의 과도기적 저항으로 간주되었다.⁹⁾ 우리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식민 잔재와 단절하려는 시도는 근대와 식민의 경험이 복합되면서 발생했던 근대사의 문제점을 표면에 노출시켰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음악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하에서 근대화, 서구화에 의해 변질된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이식된 서구 음악 어법을 우리식 감수성에 맞게 토착화하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 서구식 음악관에서 탈피하고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인도, 아랍 및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음악 전통과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자국 문화 전통과 종교 등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확보한 중국과 인도는 유럽의 목적론적 관점이 배제된 고유한 음악사관을 표방하는 독자

8)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3), 148-153, 225, 243; Homi K. Bhabha,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25.

9) 김성혜, “한국에서의 음악학 담론과 제도: 학문의 정치성,” 『서양음악학』 12/3 (2009), 88-94.

적인 모델을 채택하고 이를 발전시켰다.¹⁰⁾ 그 외에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아시아 여러 지역의 전통음악은 자신에 대한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론과 관점, 언어에 의한 연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¹¹⁾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서양이 기획한 ‘근대’의 폐단이 드러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서구식 근대가 규명했던 문화, 민족, 국가 개념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꾀하는 ‘탈근대’ 논의가 활발해진다. 그리고 동양은 서양과의 이분법적 관계에서 벗어나 근대의 하부 주체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탈식민주의 논쟁과 실천에 참가한다. 그러나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보다 창의적인 탈식민, 탈근대 전략과 관점이 또 다시 필요해지게 된다.

3. 세계화와 아시아 공동체

(1) 세계화의 양면성

냉전 종식과 함께 199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의 경제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유럽의 국민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화된 세계화는 노동, 자본, 문화의 초국적 이동을 야기하면서 국가의 규제나 구속력을 쉽사리 뛰어넘는 거시적인 자본의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동시에 교통, 미디어, 통신, 기술의 발달을 가속화시켜

10) Prasenjit Duara,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Regula Burchardt Qureshi, "Whose Music? Sources and Contexts in Indic Musicology," *Comparative Musicology and Anthropology of Music*, edited by Bruno Nettl and Philip V. Bohl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1), 152-68.

11) 주성혜, "음악인류학의 동아시아 연구: '번역'을 넘어서," 『낭만음악』 51 (2001), 169-184; 『음악학, 사람을 느끼고 세상을 듣는』 (루텐스, 2008), 45-73.

사람, 상품, 정보, 상상, 이미지 사이의 교환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기술, 교통, 통신, 매체의 역동성은 넓은 공간에 분산된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를 생산해 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이 열어 놓은 자가 상상과 동원은 음악에 의한 공동체 감각을 생성시켜 각기 다른 문화, 역사,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결합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감 창조에 기여하였다.

세계화 초기 단계에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민족지형(ethnoscape), 기술지형(technoscape), 이념지형(ideoscape), 미디어지형(mediascape), 자본지형(financescape)”이라는 5가지 지형을 개념화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국가나 대륙의 경계선 대신, 민족, 이념, 기술, 미디어, 자본(경제)으로 구분하는 ‘인식상의 지도’로 재구성될 것이라 예측하였다.¹²⁾ 그리고 그는 세계화가 민족, 미디어, 이미지, 기술, 자본, 그리고 이념들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유발하여 문화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소에 실재하도록 하는 탈공간성(displacement)을 구현할 것이라 주장하였다.¹³⁾ 동일한 물리적 실체라도 그것이 수용되는 지역에 따라 제각각의 문화적 의미가 발생한다는 세계화에 대한 아파두라이의 관찰은,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대중문화 상품 앞에서 견재할 수 있는 지역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글로벌의 힘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을 지역성이 존재한다고 역설하는 아파두라이의 생각이 설득력을 얻음으로써, 많은 이들은 세계화가 동양과 서양을 구성해왔던 체험과 지식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해석 작업으로 발전되어 이분법적 사고 체계를 근본적으로

12) Arjun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Public Culture* 2/2 (1990), 1-24.

13) Arjun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193, 198-99.

해체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또한 세계화가 중심에서 주변이라는 일방향적 흐름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주변에서 중심으로, 그리고 주변과 주변 사이의 문화적 흐름을 활성화시켜 ‘지역화’(localization) 현상을 강화할 것이 전망을 만들어 내었다.¹⁴⁾ 이에 (지역적 순수성과 시간적 제약을 벗어난) 문화는 끊임없이 탈공간과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반복하면서 중심과 지역 사이의 역동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어 중심의 문화를 지역화하고 지역의 문화가 중심으로 이동하여 세계화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 내었다.¹⁵⁾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는 탈서구, 탈근대를 가장하고 중심의 헤게모니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 주변의 문화를 조정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었다.¹⁶⁾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은 특히 지역 내의 미디어나 대중문화의 초국적 흐름이 서구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존하는 경향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글로벌이 여전히 서구의 확산을,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의 상호 작용이 글로벌의 지배에 대한 로컬의 수동적 반응과 모방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 즉 지역 고유의 문화 가치가 상실되는 위험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계화는

14) David Morley and Kevin Robins, *Space of Identities: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London: Routledge, 1995).

15)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37-38, 43-45; Roland Robertson, “Social Theory, Cultural Relativity and the Problem of Globality,”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System: Contemporary Conditions for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edited by Anthony D. K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73. 이 글에서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전 지구적 지역화’로 번역하지 않고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표기한다.

16) Veit Erlmann, “Aesthetics of the Global Imagination: Reflections on World Music in the 1990s,” *Public Culture* 8 (1996), 481; Stuart Hall, “The Local and the Global: Globalization and Ethnicity,”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System: Contemporary Conditions for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edited by Anthony D. K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33, 38-39.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후기 단계로서 과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들의 잔재를 일소해 가장 순수하게 자본주의적 문화 논리를 양상하고 동시에 자본과 문화 사이에 형성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산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비문화의 전 지구적 확산과 팽창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확산되었다.¹⁷⁾ 그리고 현재 세계화는 중심의 헤게모니 확산과 지역의 활성화라는 양면성을 보여 주면서 진행되고 있다.

(2) 근대와 탈근대의 연속성

서두에 인용한 오카쿠라 카쿠조(岡倉覺三, 1863-1913)의 주장과는 달리,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아시아에는 아시아 모든 지역을 둘러싸는 전통적, 감정적, 문화적 공통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지역적 실질성과 동질성은 과거부터 공유해 온 문화적 공통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퍼진 서구 근대 문명의 도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더 설득력을 갖는다.¹⁸⁾ 즉, 유럽의 타자라는 서구의 인식이 ‘아시아’라는 문화적 유기체의 민족적, 시간대적, 지역적 동질성의 시초가 된 셈이다. 그런데 세계화 이후 아시아는 흥미롭게도 서구와 ‘다른’ 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산층의 글로벌리즘의 장으로 그 실질성과 공통성을 갖게 되고 아시아 각국의 증산층은 소비주의와 미디어,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문화적 연대를 이룰 수 있게 된다.¹⁹⁾ 칭(Leo Ching)의 주장처럼, 21

17) Fredric Jameson, “Notes on Globalization as a Philosophical Issue,”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edited by Fredric Jameson and Masao Miyoshi (Durham: Duke University, 1998), 54-77.

18) 이와부치 고이치, “일본대중문화의 이용가치: 초국가주의와 아시아에 대한 탈식민적 욕망,”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조한혜정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99-100.

세기 아시아주의는 고급문화와 전통 문화의 심미성으로부터 상업적인 소비문화와 대중문화로 옮겨갔고, 그에 따라 아시아의 공통성도 서구 문화 및 문명을 수용하고 흡수하려는 근대 경험 속에서 찾게 된다.

특히 동아시아 대중문화를 토대로 한 아시아 나라들 간의 문화 융합과 상호 이해는 아시아 공동체의 의미, 정체성, 실질성에 대한 칭과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²⁰⁾ 조한혜정은 한류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소비와 지역 문화 산업 사이의 협력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동아시아 문화 흐름을, 경제력을 확보한 동아시아가 동아시아의 대중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스스로 인식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해석한다.²¹⁾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의 동아시아 시장 점유를 다룬 이와부치 역시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의해 주도된 아시아 문화 연대를 서구 대중문화의 모방형이 아닌 아시아적 ‘정서’와 자본 이동에 의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 전유나 혼종화 실천의 한 유형으로 주목한다. 또한 그는 아시아 시장을 점령한 동아시아 대중문화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의 이차적 복사물이 아니라 근대가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 다시 만들어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특성을 띠었다고 주장한다.²²⁾

표면적으로 볼 때 아시아 내 대중문화의 흐름에서와 같이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서도 아시아 문화들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아시아의 근대성과 과거 전통(토착 문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파악하려는 움직임 또한 보인다. 이런 관찰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매개자, 번역자’로서의

19) Ching, “Globalizaing the Regional, Regionalizing the Global,” 280-282.

20) 이와부치, “일본대중문화의 이용가치,” 100-101.

21) 조한혜정, “글로벌 지각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 문화』 (조한혜정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2-3.

22) 이와부치, 위의 글, 90.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서 중심의 헤게모니가 확산되어 음악 연구에서조차 ‘정치적 역동’(politics)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 시점에,²³⁾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로컬’에 존재하는 아시아의 다양한 “하위문화들”(subcultures)과 ‘글로벌’의 “상위문화”(superculture)를 이어 주고 ‘글로벌’을 조망하는 “중간문화”(interculture)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문화 산업 중심의 글로벌에 대한 아시아 문화 전통의 “연대”(historical bloc)가 만들어 내는 “자생적 지식”으로서 세계화의 힘의 논리와 헤게모니에서 자유로운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활성화시킬 잠재성을 가진 듯하다.²⁵⁾ 로컬과 글로벌이라는 구분 속에서 로컬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어떤 면에서 경제적, 정치적 결속보다 문화적 연대를 중시하는 21세기 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의 문제점이 세계화 현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무의식중에 중심의 목소리를 재생산하고 반복하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염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내세우는 아시아 공동의 전통 회복과 재창조를 세계화 시대 문화 현상의 양가성과

23) Philip V. Bohlman, “Other Ethnomusicologies, Another Musicology: The Serious Play of Disciplinary Alterity,” *The New (Ethno)musicologies*, edited by Henry Stobart (Lanham, MD: The Scarecrow Press, 2008), 95-100.

24) 슬로빈은 세계화와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의 초국가적 문화 흐름을 명시하면서 문화 간의 교류나 소통이 국가나 지역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주목하고자 “상위문화, 중간문화, 하위문화”를 개념화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Mark Slobin, *Subcultural Sounds: Micromusics of the West*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3), 27-29, 33, 61.

25)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New York: Lawrence and Wishart, 1971), 9-10.

26) Ching, “Globalizing the Regional, Regionalizing the Global,” 285-286.

중심과 지역 사이의 불평등한 역동 속에서 조망해 보고 세계화 시대 탈식민화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3) 세계화와 근대화

1) 글로벌과 로컬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주제는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이다. 아시아 고유의 정체성 확보와 새로운 ‘전통’의 창조를 위해, 자생적으로 발전된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이나 민속 음악을 탈근대, 아시아적 맥락에서 합성하고자 하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모습은 근대 국가(nation-state) 초기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민족이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동질성을 형성하였던 근대 초기 유럽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 즉 ‘상상의 공동체’를 성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²⁷⁾ 이 과정에서 유럽의 국가들은 과거를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획일화하고 재조정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과거’에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의미를 덧붙였다. 즉, 민족과 국가의 허구성에 실질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럽은 ‘전통’이라는 개념과 그 실체를 창조한 것이었다.²⁸⁾ 그리고 민족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민족 국가의 정치·경제 이념이나 제도와 상충되는 가치나 ‘문화’를 전통의 외곽에 배치시키면서 타

27)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36, 45-46;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3) 38, 56; *Encounters with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94), 182.

28) Eric Hobsbawm,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The Invention of Tradition*, edited by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0-14; Gellner, *Encounters with Nationalism*, viii.

자화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에서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연결시키기 위해, 즉 현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²⁹⁾

유사한 맥락에서 세계화 시대 아시아 공동체의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위해 ‘전통’은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 아시아 공동체의 역사적 실존성을 창조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21세기 아시아 공동체가 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 혹은 중심과의 경계선을 그리는 작업이란 점에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상이한 아시아 음악 전통을 융합하고 지역에서의 경계를 해체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과거의 재맥락화로서 아시아 공동체의 경계 확립과 연관되어 있다.

서구 대중문화 혹은 예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렇지만 아시아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결속시켜 주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식민화된 모방인지 아니면 탈식민적 극복인지는 아마 앞으로의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행보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20세기 초 예술의 심미성과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 타자화되고 서구와의 거리를 유지하던 아시아가 21세기 초 글로벌 문화 산업의 헤게모니를 의식하여 로컬에서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모습은 여전히 서구를 의식하는, 서구의 자극이 주어질 때만 반응하는 수동적인 탈식민성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³⁰⁾ 여러 가지 이유에서 20세기 이전에는 문화적 동질성과 연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던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악이, 21세기 아시아 공동체의 동질성을 만들어 내고 매체에 의한 자가 상상(self-imagination)과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공통의 전통’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29) Bohlman, “Other Ethnomusicologies, Another Musicology,” 104-107.

30) 이현식, “다시 생각해보는 민족과 민족문학: 최일수, 백낙청, 채광석의 민족문제인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13 (1999), 238.

2) 전통주의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전통에 대한 본질주의적, 오리엔탈리스트적인 관점이다. 각기 다른 음악 전통들을 서구와의 접촉 이전의 토착 또는 고유문화라는 이유로 연합하려는 것은 여전히 외래문화의 개입을 거부하고 외래문화와의 무관계성을 강조하는 전통에 대한 본질주의적 담론을 무의식중에 재생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이 ‘자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관점은 전통주의적이고 다분히 오리엔탈리스트적이다. 전통이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고정불변의 고유문화라는 이 같은 관점은 근대화, 식민화에 의한 자국 문화 지키기에서 비롯된 서구에 대한 민족주의 방식의 대응이다. 서구와의 대면 이전 전통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 즉 토착 문화와 외래문화의 합성, 아마도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토착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전통문화가 외래문화의 영향과 접촉 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전통주의적 관점은 다소간 아프리카주의(Africanism)와 유사한 면이 많다.³¹⁾ 한때 흑인 문화가 어떠한 외부의 문화적 영향력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아프리카 중심주의 담론은 강제 이주, 노예제, 식민, 근대 등 전 세계에 흩어진 흑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흑인 문화의 진정성에서 배제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아프리카 중심주의 같은 담론이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만약 21세기 아시아가 전통에 함축된

31) Paul Gilroy, *The Black Atlantics: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London: Routledge, 1993), 30, 126, 188; *Darker than Blue: On the Moral Economies of Black Atlantic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5-7, 12-13.

과거의 진정성과 고유성, 독자성을 중시하는 이유가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없는’ 과거 아시아 전통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근대화 담론의 또 다른 목소리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아시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서구 문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타자적 관점이 ‘변화하지 않는, 정체된’ 전통이라는 관점에 은연중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시아가 자신의 과거를 타자화하는 것은, 결국 과거와 현재의 단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하위문화들과 전통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타자화하는 작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구와의 시공간적 거리를 강조하면서 전통을 창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즉 우리 삶의 가치인 전통을 저만치 떨어져 물리적인 꼴로만 존재하도록 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미래의 삶의 방식조차 남의 평가에 좌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³²⁾

3) 내면화된 식민성과 탈식민적 모방

한때 아시아의 근대사는 서구 근대사의 모방으로 폄하되었다. 탈식민주의 이론가 파농(Frantz Fanon)에 의하면, 서구에 대한 “모방”(replica)은 근대주의적, 식민주의적으로 구성된 유산으로서 ‘식민화된 아시아(타자)’에서 ‘탈식민’ 사이의 과도기 단계에서 잔존하게 된다.³³⁾ 이런 이유에서 탈식민적 투쟁이나 실천에서는 식민주의자의 관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식민주의자의 관점에서 식민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모순된 욕구와 이해관계가 자주 등장한다. 내면화된 식민 의식은 아시

32) 주성혜, 『음악학, 사람을 느끼고 세상을 듣는』, 176.

33)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60-62, 229-231;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2), 28-30.

아 공동체가 근대 이전의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아시아를 유럽의 타자로 규명하면서 자기 자신과 분리시키는 식민 상황을 지속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중 의식”(double consciousness),³⁴⁾ 즉 내면화된 식민 의식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컬)과는 거리를 유지 하면서 중심에 더 집착하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순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바(Homi K. Bhabha)는 한편으로 이중 의식이 식민성을 내면화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식민으로서의 자아와의 분리와 충돌 속에서 중심의 헤게모니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모방”(mimicry) 하고 패러디하는 탈식민의 긍정적 동인으로 간주하고 관심을 갖는다.³⁵⁾

그러나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내면화된 식민주의는 긍정적인 측면의 모방보다는 헤게모니에 대한 동경, 혹은 지역에서의 헤게모니 관계 구축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더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내에서의 헤게모니 구조가 재생산되고 모방되는 것은 내면화된 식민 의식이 갖는 탈식민적 모방이나 풍자와는 다른 속성을 보인다. 지역에서의 헤게모니 구조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는 한류 초기에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한류가 ‘문화’가 아니고 ‘정치’라는 부정적인 의견에 부합되는 일본과 중국의 ‘협한류’는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 대중문화

34) 뒤 보아(Du Bois)가 1903년 흑인 문화의 창조적인 이중성(doubleness)을 분석하면서 사용했던 말로서, 그 뜻은 ‘자신을 언제나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려는 것’이다. 이 용어는 뒤 보아가 대서양을 오가는 아프리카인들의 표현 양식에 나타나는 즉흥적인 변증법과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이다. 이것을 길로이(Paul Gilroy)는 계몽주의적 옹호와 아프리카 중심주의, 반인종차별적 이성을 변증법 관계로 재구성하기 위해 차용한다. 아시아 공동체에 내면화된 식민 의식은 흑인 문화의 창조적인 이중성, 의미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식민과 탈식민 사이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용하였다. Gilroy, *The Black Atlantics*, 161.

35) Homi K. Bhabha,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October* 28 (1984), 126-127.

흐름의 중심에 서서 아시아 젊은이들의 문화적 연대감과 정체성을 특정한 관점에서 변형하고 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주변의 소리일 수도 있다.³⁶⁾ 또한 일본과 중국 중심의 ‘협한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속하기 위한 ‘오리엔탈 오리엔탈리즘’이나 ‘제국주의적 중화사상’이란 점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동경일 수도 있다.³⁷⁾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결성 초기 ‘한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을 가졌었다. 아시아 전통에 기반을 둔 새로운, 공동의 아시아 문화전통 창조를 강조하면서 오케스트라 명칭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처한 모순된 위치에 주목을 하게 만들었다.³⁸⁾ 일본이 아시아에 속하면서 스스로를 아시아를 초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발생했던 20세기 제국주의가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한 동경과 모방에 근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의식중에 아시아의 자생적 문화 연대에서 중심에 서고자하는 욕망을 갖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선부른 판단은 아직은 위험하

36) George Lipsitz, *Dangerous Crossroads: Popular Music, Postmodernism and the Poetics of Place* (New York: Verso, 1994), 12-13, 137-54.

37) 이와부치, “일본대중문화의 이용가치,” 96. 제국주의에 대한 모방으로서의 민족주의 실천의 극단적인 예로는 일본의 ‘오리엔탈 오리엔탈리즘’이 있다.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일본은 서구로부터 부여된 동양이라는 객관적 범주에서 벗어나면서 동양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 채 근대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일본은 일본(의 근대성)과 아시아 공동체(의 전 근대성)를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스스로를 서구식 자아와 아시아의 타자 사이의 매개자 혹은 아시아의 타자성을 극복한 탈아시아적 자아로 인식하였다.

38) 이 글의 초고가 2010년 10월 16일 한국음악학학회에서 발표되었을 당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초기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 한국을 아시아와 구분하는 명칭의 배경이, 오케스트라 결성에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재정적 기여도를 반영하려는 의도인지, 혹은 오케스트라에 함께 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위상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등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과 질문이 있었다.

다고 본다.

4) 동질성과 혼종성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 내포된 세계화 논의의 마지막 주제는 동질성과 혼종성(hybridity)이다. 창단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우리 전통 악기를 포함하여 11개국의 50여 종의 악기가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³⁹⁾ 이 무대가 각기 다른 음 재료, 기능, 미적 가치에 따라 만들어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악 전통과 정서적 표현을 받아들여려는 이해, 관심, 열정에 기반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시아 각국의 소리가 하나가 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 주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은, 분명 서양 오케스트라 음향과는 태생적인 ‘다름’을 강조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케스트라라는 악단의 특성, 악기 배치와 규모, 음량, 무대형태, 지휘자, 원곡과 편곡의 관계 등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서구 오케스트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묘한 인상을 준다.

서구 오케스트라와의 묘한 닮음 외에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은 흥미롭게도 ‘아프리카 음악, 그리스 음악, 중동 음악, 라틴 댄스 음악, 탱고, 집시 음악’ 등을 지칭하는 월드뮤직과도 어딘지 모르게 닮았다. 1992년 《아프리카의 단편들》(Pieces of Africa)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크로노스 4중주단(Kronos Quartet)의 앨범은 ‘아프리카’ 음악에 대한 특정 견해와 관점을 반복함으로써 아프리카 출신 원작자들이 의도했던

39)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 및 작품 소개, 작곡가, 참가 악기 및 연주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 2010년 5월 13일 보도자료”(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00513020700353, 2012년 4월 21일 접속)와 “2011년 8월 2일 보도자료”(www.cct.go.kr/download.do?tableCode=1008&num=68445...1, 2012년 4월 21일 접속)를 참조하시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각기 다른 음악문화의 고유성을 획일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⁴⁰⁾ (아프리카 작곡가들과 함께한) 크로노스 4중주단의 앨범이 서구인들의 이국정서와 대중음악 취향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식민주의적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테일러(Timothy D. Taylor)의 경고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창조하고자 하는 ‘아시아 공동체의 전통’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비평의 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각기 다른 아시아 전통음악의 ‘소리’나 ‘외형’만이 공유되는 ‘정치’의 장도,⁴¹⁾ 아시아 공동체가 미래에 공유하고자 하는 전통에 대한 획일화된 관점과 취향만을 강요하는 만남의 장도 아니다. 그렇지만 서구와의 ‘다름’을 강조하고 서구가 기대하는 오리엔탈리스트적인 아시아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통’에 대한 탐구는, 아시아의 과거를 무국적의 월드뮤직으로 물화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시아 각 나라의 민요를 연주하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월드뮤직이 조작하고 정당화하는 ‘지역성’이나 ‘장소성’, ‘투어리즘’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은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 전통 의상과 전통 악기를 ‘보여 주고’ 이국적이고 신기한 새로운 음향의 조합을 ‘들려주는’ 투어리즘이 아니다. 그 무대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이 살아서 숨 쉬고 과거 아시아 국가 사이의 단절과 무관심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혼종성은 탈식민주의 이론가 바바에 의해 탈식민적 전략과 속성의 하나로 소개되었다.⁴²⁾ 따라서 혼종성은 탈식민적 맥락에서 문화의 의

40) Timothy D. Taylor, *Global Pop: World Music, World Markets* (New York: Routledge, 1997), 53-57; 김성혜, “<터키행진곡>에서 <라이언 킹>까지: 소리로 재현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단상,” 『음악이론연구』 14 (2009), 35-36.

41) Lipsitz, *Dangerous Crossroads*, 38-41, 137-154.

42)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112-120, 227-228, 251-252; Bohlman, *World Music: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5.

미 그리고 문화의 속성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특히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문화, 장르의 합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기원의 순수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문화에 대한 소유 그리고 문화 사이의 경계를 의미하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우리’도 ‘그들’도 아닌 ‘제3의 어딘가’ 즉 “사이(에 낀) 공간”(in-betweenness)을 지칭하면서 자아를 상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⁴³⁾ 또한 자아의 상대적 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아의 확고한 경계 그리고 타자와 자아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특성과 현상을 만들어 내는 속성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교류가 빚어내는 혼종성은 문화의 기원과 진정성의 무너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바바의 주장을 반복하자면, 혼종성은 지역과 역사적 공통성에 근거하는 문화의 기원을 근대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문화의 속성과 본질을 ‘경계 지키기’가 아니라 ‘경계 넘기’ 혹은 ‘경계 무너뜨리기’로 본다. 이는 기원의 진정성을 조작해 낸 서구의 ‘근대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만들고자 하는 전통은 ‘획일화된 동질성’보다 ‘혼종성’의 특성에 더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여기서의 혼종은 단순히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소리와 음악 구조, 형식, 선율 같은 외형적인 특징들이 어우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서 발표되는 곡 하나하나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자국 음악 전통과 서구와의 접촉 이후 자국의 음악 전통을 바라보는 현재 아시아의 관점과 경험들이 하나로 어우러짐을 의미한다. 또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담겨 있는 음악 전통의 가능성을 꿈꾸는 음악인 동시에,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이 얽히고설키면서 만들어 내는 경계선상과 사이 공간의

43)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254.

상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우리(한국)와 아시아와의 거리감을 말소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과거)와 우리(현재), 우리와 베트남, 우리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왜’ 다른지를 이해하고 알아 가는 연습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과정과 훈련이 축적되는 중에 자연스럽게 자생적인 아시아 공동체의 음악 전통과 형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획일화인가 아니면 혼종화인가라는 갈림길에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스스로의 발걸음과 목적지를 신중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4. 나아가면서

1987년 사이먼 앤 가펩클의 멤버인 사이먼(Paul Simon)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음악가들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졌던 《그레이스랜드》(Graceland) 공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주의의 종식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공연의 주인공은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Ladysmith Black Mambazo)나 미리암 마케바(Miriam Makeba) 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흑인 음악가들과 청중들이었다. 그런데 이 공연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음악가가 아니라 사이먼의 《그레이스랜드》로 더 많이 기억되고 회자된다. 공연에 함께한 ‘그들’보다 ‘사이먼’의 공연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를 조정하는 ‘연출가 사이먼’과 연출에 따라 연기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상황은 무대와 연출로 동양과 서양을 구분 짓던 오리엔탈리즘과 중첩된다.⁴⁴⁾

《그레이스랜드》처럼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서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지는 않는지 경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근대주의와 제국주의의 산물로 탄생한 아시아 공동체가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근대주의 이념에 의지하여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의 음악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 지역의 생존이고 탈식민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로컬)의 중심이 되어 글로벌의 중심에 나가려고 하는 욕망은 한류에서도, 일본의 근대사 왜곡, 중국의 동북 공정에서도 거의 감추어지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위험한 교차로”(dangerous crossroads)에 멈춰서 있는지도 모른다.⁴⁵⁾ 분명 이 ‘교차로’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문화 간의 흐름과 충돌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교차로’에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곧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차로에 멈춰 있는 동안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의 특성을 냉철하게 살피면서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위험한 교차로에서 세계화가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위험과 실수의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탈식민의 길로 들어설지는 이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선택에 달렸다. 그렇지만 함께 연주하는 무대의 감동과 그리고 무대와 하나 되는 객석의 감동은 헤게모니 관계에서 자유로운 탈식민적 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게 한다.

44) 주성혜, 『음악학, 사람을 느끼고 세상을 듣는』, 172-177; Lipsitz, *Dangerous Crossroads*, 71; Taylor, *Global Pop*, 22.

45) “위험한 교차로”는 서구 주도의 상품 문화가 이끄는 세계화 시대의 물화된 음악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만들어 내는 다른 의미와 기능을 다루는 립시츠(George Lipsitz)의 책 제목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책에서 다루는 아이티 음악그룹 부크만 엑스피리언스(Boukman Eksperiyans)의 크레올어 노래 제목인 <칼푸 단제레> (Kalfou Danjere)의 뜻이기도 하다. Lipsitz, *Dangerous Crossroads*, 1-20.

참고문헌

- 김성혜. “한국에서의 음악학 담론과 제도: 학문의 정치성.” 『서양음악학』 12/3 (2009), 85-105.
- _____. “〈터키행진곡〉에서 《라이언 킹》까지: 소리로 재현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단상.” 『음악이론연구』 14 (2009), 25-39.
- 박범훈. “인사말,” 『한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창단공연』 (2009년 5월 31일/6월 4일), 3.
- 이와부치 고이치. “일본대중문화의 이용가치: 초국가주의와 아시아에 대한 탈식민적 욕망.”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조한혜정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87-124.
- 이현식. “다시 생각해보는 민족과 민족문화: 최일수, 백낙청, 채광석의 민족문제인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13 (1999), 223-247.
- 조한혜정. “글로벌 지각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 열풍’.”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조한혜정 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1-42.
- 주성혜. “음악인류학의 동아시아 연구: ‘번역’을 넘어서.” 『낭만음악』 51 (2001), 169-189.
- _____. 『음악학, 사람을 느끼고 세상을 듣는』. 루덴스, 2008.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 Appadurai, Arjun.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Public Culture* 2/2 (1990), 1-24.
- _____.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2nd ed.

- New York: Routledge, 2002.
- Bhabha, Homi K.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October* 28 (1984), 125-33.
- _____.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 Bohlman, Philip V. *World Music: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Other Ethnomusicologies, Another Musicology: The Serious Play of Disciplinary Alterity." *The New (Ethno)musicologies*, edited by Henry Stobart. Lanham, MD: The Scarecrow Press, 2008, 95-116.
- Duara, Prasenjit.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 Quest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Erlmann, Veit. "Aesthetics of the Global Imagination: Reflections on World Music in the 1990s." *Public Culture* 8 (1996), 467-88.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3.
-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_____. *Encounters with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94.
- Gilroy, Paul. *The Black Atlantics: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London: Routledge, 1993.
- _____. *Darker than Blue: On the Moral Economies of Black Atlantic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New York: Lawrence and Wishart, 1971.
- Hall, Stuart. "The Local and the Global: Globalization and Ethnicity."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System: Contemporary Conditions for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edited by Anthony D. K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19-40.
- Hobsbawm, Eric.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The Invention of*

- Tradition*, edited by Eric Hobsbawm and Terence Rang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14.
- Jameson, Fredric. "Notes on Globalization as a Philosophical Issue."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edited by Fredric Jameson and Masao Miyoshi. Durham: Duke University, 1998, 54-77.
- Lipsitz, George. *Dangerous Crossroads: Popular Music, Postmodernism and the Poetics of Place*. New York: Verso, 1994.
- Morley, David and Kevin Robins. *Space of Identities: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London: Routledge, 1995.
- Qureshi, Regula Burchardt. "Whose Music? Sources and Contexts in Indic Musicology." *Comparative Musicology and Anthropology of Music*, edited by Bruno Nettl and Philip V. Bohl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1, 152-68.
-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 _____. "Representing the Colonized: Anthropology's Interlocutors." *Critical Inquiry* 15 (1989), 205-25.
- Slobin, Mark. *Subcultural Sounds: Micromusics of the West*.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3.
- Taylor, Timothy D. *Global Pop: World Music, World Markets*. New York: Routledge, 1997.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보도자료." 2010.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howPress.aspx?contents_id=RPR20100513020700353 (2012년 4월 21일 접속).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보도자료." 2011. www.cct.go.kr/download.do?tableCode=1008&num=68445...1 (2012년 4월 21일 접속).

아리랑 TV.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홍보영상.”

http://www.chordscenter.net/-arirangtv-korea-asean-traditional-orchestra---_watch-video-xrtrttvjlfhvxtv.html (2012년 4월 16일 접속).

제2회 국제 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연구회 국제 학술대회 프로그램.

<http://www.ictmusic.org/group/112/post/second-conference-ictm-study-group-musics-east-asia-mea-24-26-august-2010-academy-kor> (2012년 5월 28일 접속).

Abstract**Asian Communities and Tradition:**

Postcoloniality of Korean Music in the Globalization

Kim, Sunghye

Recently, Asia Traditional Orchestra is paid attention to by the scholarly communities of Korea. 11 Asian countries participate in launching Asia Traditional Orchestra and have sought to construct Asia's indigenous cultural values. Thus, it seems that the launch of Asia Traditional Orchestra mirrors a first step to reconstruct an imagined community of Asia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sian Traditional Orchestra can be seen as a decolonization and glocalization of postcolonial Asian communities, adopting the strategies of juxtaposition and intertextuality of one's own musical tradition. In this sense, the main goal of my paper is to analyze the dynamics and imbalance between global and local which is reflected in Asia Traditional Orchestra. On the one hand, my argument is more centered on how this orchestra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observes Asia herself as others. That is, my paper not merely mediates the dialogics between the 'West/global' and the Asian communities/local and between modernity and tradition but also uncover the modernist and Orientalist discourse hidden in this project. On the other hand, my paper also explores the way which Asia Traditional Orchestra can serve as a meaningful proposal for overcoming the ambivalence of globalization.

Keywords: globalization, glocalization, tradition, orientalism, Asianism, postcoloniality, Asia Traditional Orchestra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2년 4월 28일	2012년 5월 4일~23일	2012년 6월 1일